

지난 11월 20일 건축공간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과 도시공간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행사를 통해 일상의 생활환경으로서 건축과 도시공간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이를 둘러싼 이슈와 앞으로의 과제, 그 안에서 건축공간연구원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승효상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제로 문을 연 심포지엄은 건축과 도시공간의 미래 과제와 관련된 네 가지 발제로 채워졌으며,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내외부 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다시 한번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았다.

66

건축과 도시공간의 양(quantity)과 질(quality), 모두가 업그레이드되어야 국민의 삶과 행복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개원을 계기로 연구원은 더욱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며 새로이 시작하겠습니다.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99



66

대중의 눈높이와 삶, 절실하게 삶에서 부딪히는 가치와 맞닿는 연구를 펼치는 국책연구기관, 건축도시 분야의 뜨거운 감자를 만지는 용감함을 갖추고 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국책연구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99



66

이제 집은 단순히 집 이상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주거공간에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공간과 도시공간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관이자, 친절한 자문관의 역할을 건축공간연구원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99





66
우리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건축물 안에서 보냅니다. 건축물은 일상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도 건축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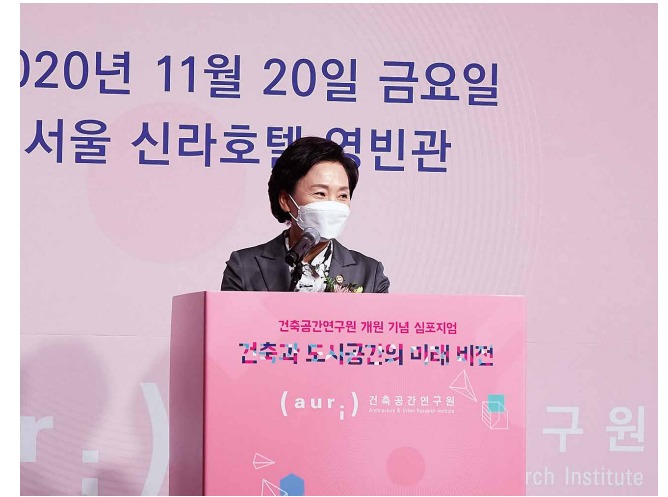
정세균 국무총리

99

66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의 정착으로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건축과 도시공간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건축도시 분야의 싱크탱크인 건축공간연구원이 승격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99



66
열악한 보행환경, 재난과 안전에 대한 위협 등 건축과 도시공간을 둘러싼 위험 요인을 줄이고 사람 중심 사회,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99



66
지속적이고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축도시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생산하는 전진기지로 발전할 것을 기원하고,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 위원장

99



